

# 대법원 2017마5883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권순일)은 2018. 7. 5. 피고 (주)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 (주)동양 및 모집 주관사인 피고 유안타증권(주)[舊 동양증권(주)]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(대법원 2018. 7. 5.자 2017마5883 결정)

## I.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

### ■ 사건 개요

- 피고 (주)동양(이하 '피고1')은, 2013. 10.경 발생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발생 직전인 2012. 3. 30.부터 2013. 8. 28.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였고(256~258, 260~268회), 피고 동양증권(주)[現 유안타증권(주)]은 그 모집 주선 사무를 주관하였음
- A 등 1254인(이하 '이 사건 소제기자들')은, 자신들이 위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, 위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고, 피고들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회사채를 판매하였으며, 이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였음

### ■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

- 별지와 같음

### ■ 제1심 및 원심 판단

- 제1심은 소 제기 공고 후 A~E 5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허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
  - 【피고1에 대한 신청】 '2013. 10. 17. D1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6. 2. 3.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, 이 사건 소제기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위 채권이 실권되었다.'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음 (이에 대한 대표당사자들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, 피고1에 대한 부분은 재항고심에서 다투어지지 않고 있으므로, 아래에서는 피고2에 대한 신청에 관해서만 살펴봄)
  - 【피고2에 대한 신청】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하였음
- 대표당사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, 총원의 범위를 '256~258, 260~268회차 회사채 취득·보유자'에서 '262~268회차 회사채 취득·보유자'로 축소해 달라는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을 하였음
-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
  -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므로(제1심결정 후에 고지된 대법원 2016. 11. 4.자 2015마4027 결정 참조),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부족하다는 피고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  - 그러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이어야 하는데, 위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표당사자들 중 D, E는 262~268회차 회사채를 취득·보유하지 않아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음
  - 이처럼 일부 대표당사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,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가할 수 없음

- 이에 이 사건 대표당사자들(A~E)이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함

## II. 대법원 판단 요지 : 원심결정 파기·환송

-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,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,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(적용범위)와 제12조(소송허가 요건)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,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함

- 왜냐하면,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,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,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임

- 따라서 위 총원 범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총원 범위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들 중 재항고인 D, E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다른 대표당사자들인 재항고인 A, B, C 등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할 수는 없음

## III. 판결의 의의

-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2004. 1. 20.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음
- 그러나 그 입법 자체의 불완전함과 소송허가 요건의 불명확성, 새로운 제

도 도입에 따른 선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송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·재항고가 반복되고, 이로 인하여 소송허가 절차가 지연됨으로써,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용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

- 이 판결은 대표당사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도, ① 요건을 갖춘 다른 대표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② 나머지 소 제기자들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새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, 새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(법 제21조) 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대표당사자들만으로 소송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,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할 수는 없음을 밝혔음

-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임(법 제22조)

- 이 판결은 선례가 없고 학설이 대립하던 영역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불비로 인한 소송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,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신속과 원활을 도모하고 절차적 낭비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

(별지)

## **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**

- 증권관련 집단소송법(이하 '법') 제2조에 의하면 '총원'이란 피해자 전원을 뜻하고, '구성원'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하며, '대표당사자'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함
-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 제125조, 제162조, 제170조, 제175조, 제177조,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음(제3조 제1항)
-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(법 제7조 제1항)
- 법원은 제7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 제기 사실, 총원 범위,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등을 공고하여야 함(법 제10조 제1항)
- 법원은 위 공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함(법 제10조 제4항)
-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함(법 제11조 제1항)
- 법원은 법 제3조(적용범위), 제11조(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), 제12조(소송허가 요건)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함(법 제15조 제1항)
-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해 심리·판단하게 됨